

다시 푸는 경서

수심결(修心訣) 19-끝

今若不修 萬劫差違 今若不修 萬劫差違
금약불수 만겁차위 금약강수
難修之行 漸得不難 功行自進
난수지행 점점불난 공행자진
嗟夫 今時人 前逢王勝 不知下口
차부 금시인 기봉왕선 부지하구
病遇醫王 不知服藥
병우의왕 부지복약
不曰如何如之何者
불일어지하어지하자
吾末 如何也已矣
오미 여지하어이의

고금강경은 어차장구 능생심사자
當知是人 已於無量佛所 種諸善根
당지시인 이어무량불소 종제선근
又云爲發大乘者說 爲發最上乘者說
우운위발대승자설 위발최상승자설

슬프다. 우물안 개구리가 어찌 바다
의 넓음을 알며, 여우가 어찌 사자의
소리를 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말
법 세상에 이 법문을 듣고 희유한 생
각을 내어 믿고, 이해하여 받아 지니
는 사람은 이미 한량없는 겁동안 모든
성인을 받들어 섬겨서 모든 선근을 쇠
고 지혜의 바른 인연을 깊이 맺은 최
상의 근기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금강경>에 '이 글귀에 능히 심신을
내는 사람은 이미 한량없는 부처님의
처소에서 모든 선근을 심은 것이다.'
하였고, 또 '이 법은 대승의 마음을
낸 사람과 최상승의 마음을 낸 사람들
위하여 설한다.' 하였다.

願諸求道之人 莫生怯弱
원제구도지인 막생겁약
須發勇猛之心 宿劫善因 未可知也
수발용맹지심 숙겁선인 미가지야
若不信殊勝 甘爲下劣 生難阻之想
약불신수승 감위하열 생간조지상
악욕회보 방하피낭

지금 만약 닦지 않으면 만겁에 어긋
나고, 지금 만약 억지로라도 닦으면 닦
기 어려운 수행도 점점 어렵지 않게 되
어 공행(功行)이 저절로 나아갈 것이
다. 슬프다. 지금 사람은 배가 고프면
서도 맛난 음식을 보고 먹을 줄을 알지
못하고, 병이 들어 의사를 만났어도 약
을 먹을 줄 모르는구나. 참으로 '어떻
게 할까, 어떻게 할까' 하며 걱정하지
않는 사람은 나도 어찌할 수 없다.

且世間有爲之事 其狀可見 其功可驗
차세간유위지사 기상가견 기공가험
人得一事 歎其希有 我此心宗
인득일사 탄기희유 아차심종

보배 있는곳 알고도 구하지 않겠는가

無形可觀 無狀可見 言語道斷
무형가관 무상가견 언어도단
心行處滅 故天魔外道 毀謗無門
심행처멸 고천운외도 훼방무문
釋梵諸天 稱讚不及
석방제천 칭찬불급
況凡夫淺識之流 其能勝處
況凡夫淺識之流 其能勝處
황범부천식지류 기능방불

今不修之 則縱有宿世善根 今斷之故
금불수지 즉종유숙세선근 금단지고
彌在其難 展轉難矣 今既到寶所
미재기난 전전원의 금기도보소
不可空手而還 一失人身 萬劫難復
불가공수이환 일실일신 만겁난복
請須慎之 豈有智者 知其寶所
請須慎之 豈有智者 知其寶所
청수신지 기유지자 지기보소
反不求之 長怨孤貧
반불구지 장원고빈
若欲獲寶 放下皮囊
약욕회보 방하피낭

또 세상 유위(有爲)의 일은 그 형상
을 볼 수도 있고 그 공덕도 경험할 수
있으므로 사람들이 한 가지 일만 얻어
도 희귀하다고 감탄한다. 그러나 나의
이 마음은 그 형상을 볼 수도 없고 말
로 표현할 수도 없으며 마음으로도 생
각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천마와 외도
들이 훼방하려 해도 길이 없고 제석천
과 범천의 모든 하늘이 칭찬하려 해도
기치지 못하는데 하물며 알파한 범부의
무리가 어찌 짐작이나 할 수 있겠는가.

悲夫并姓 焉知滄海之闊
비부정와 언지창해지활
野干何能師子之吼 故知末法世中
야간하능사지후 고지말법세중
聞此法門 生希有想 信解受持者 已於
문차법문 생희유상 신해수지자 이어
無量劫中 承事諸聖 植諸善根
무량겁중 승사제성 식제선근
深結般若正因 最上根性也
심결반야정인 최상근성야
故金剛經云 於此法句 能生信心者
고금강경운 於此法句 能生信心者

원래도 도를 구하는 사람은 겁내거나
약한 마음을 내지 말고 부디 용맹스런
마음을 내어야 한다. 속세에 맺은 거룩
한 인연 가히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만
약 이처럼 수승한 근기를 믿지 않고 스
스로 못났다고 하여 어렵다는 생각을
내어 금생에 닦지 않으면 비록 속세에
선근이 있다 해도 지금 그것을 끊어버
리는 것이 되므로 더욱 어려워지고 점
점 멀어질 것이다. 이미 보배 있는 곳
에 왔으니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 번 사람의 몸을 잃으면
만겁에 회복하기 어려우니 청컨대 부디
삼가야 한다. 지혜로운 사람이려면 어
찌 보배가 있는 곳을 알고도 그것을 구
하지 않다가 오래 외롭고 가난함을 원
망하겠는가. 만약 보배를 얻으려거든
그 가족주머니를 놓아버려라."
김원익(시인·역경위원)

큰스님 수행한담

“마음의 등불 하나켜면

몽월스님 (극락정사 조실)

夢路萬境夢無形
몽담만경몽무형
月照千江月無心
월조천강월무심
無形無心是實相
무형무심시실상
夢覺天下月長明
몽각천하월장명

꿈에 만가지 형상을 밝아도 꿈은 형상
이 없고
달이 천강을 비치되 달은 마음이 없더
라.
형상이 없고 마음도 없는 것이 실상이
나니
꿈을 깬 천하에는 달만이 길히 밝더라.

세상을 살다보면 뜻하지 않은 재난과
고통, 그리고 욕망때문에 한시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번뇌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눈앞의 행복만을 추구하
며 어떻게든지 자신의 평안만을 얻으려
고 인간됨을 쓰고, 그로인해 번뇌에 사로
잡혀 헤매는 것입니다.

불교의 대의는 상부에 있는데 그 길은
자기를 찾는 것입니다. 성불하기 위해
는 자기마음을 다스려야 한다는 뜻입니
다. 마음은 진리의 본성이고 자신의 근본
이지요. 그러므로 우주적 진리인 자기자
신의 마음이야말로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임을 인식하고 사각같은 답답한 마음을
욕도와 같은 중요로운 마음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小)니 대(大)니,
많고 적음의 분별심을 부셔야 합니다. 명
예니 돈이니 하는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참나가 나옵니다. 참나를 찾으면
인생이 중요로워지고 행복은 저절로 찾
아오지요.

한낱 촛불이 굴속을 밝힐 수 있다면 마
음의 등불은 세상과 우주를 밝힐 수 있
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나는 1919년에 안양 삼막사에서 태어
났어요. 아버지가 스님이셨기 때문이지
요. 부친 영은스님은 원래 경기와 서울지
역에서 유명했던 집승사셨는데 45세의
나이에 모든것을 버리고 출가를 하셨습
니다.

그래서 절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아버
지 영은스님은 한살차이며 똑같은 달,
똑같은 시에 태어난 동생 무월스님과 내
가 출가하기를 바랐습니다. 항상 동생과
나에게 스님이 되어 불교의 진리를 아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
하셨지요.

그러다가 내가 8살이 되자 아버님은
나를 관악산 연주암 월해스님에게 득도
를 시켰습니다. 그러나 나는 오직 좀더
자유스럽게 생활하며 공부만 하고 싶지
불가에는 뜻이 없었습니다.

사실 당시 스님들은 밥먹기도 힘들고,
사람들에게 별 대우도 못받았거든요. 어
린눈으로 봤을 때 왜 저러면서 스님이
될까? 하는 의문밖에 없었어요. 그러다보
니 연주암에서도 오래 있을 수가 없었지
요. 안양으로 다시 돌아와 안양서당에 나
갔습니다.

동생과 나는 서당에서 사서삼경을 배
우며 1.2등을 다했지요. 그러던 어느날
많은 어린이들이 학교에 다닌다는 사실
을 알고 학교에 가고싶다고 했더니 훈장
께서 종아리를 막 때려요. 다음날 학교에
편입하려하니 일본어를 모르면 따라갈

- 1919년 서울생
27년 연주암 월해스님을 은사로
득도
42년 건봉사 불교전문강원
대교과 졸업
43년 관악산 11개사 주지대표 역임
91년 태고종 서울종무원장
95년 본동사회복지관, 현정어린
이집, 불교신학 운영
98년~현재 태고종 승정주대
현재 극락정사 오봉정사
연화정사 회주



“눈앞에 이익만 얻으려하니
마음속 번뇌 사라지지 않아
자신의 근본을 찾으세요”

수 없다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당시가 일
제시대여서 수업이 일본어로 진행했던
것이지요.
그럭저럭 19살이 되었습니. 절살림
이 나아지지 않자 아버지 영은스님은 삼
막사에 있으면서 다시 침술사 생활을 겸
하게 됐어요. 식량을 마련하려는 뜻이었
기에 농·어촌지역은 무료로 해주고 조
금 나온 집은 수확때 보리한말을 받아왔
지요.
아버지와 절친했던 최원홍스님이 우리

양반을 쳤다고 물매를 때리려고 해요. 그
래서 줄행랑을 치면서 생각했지요.
‘스님이 왜 불법에 도통하여 불교를 일
키고, 다시한번 이곳에 찾아오셨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당시에는 유교
와 불교의 대립이 극심했던 시대였어요.
출가하기 전까지 유학자들에게 두번이나
물매를 맞을 뻔 했지요.
그길로 큰절로가 수행하기로 결심하고
아버지 영은스님께 말씀 드렸더니 반가
와 하시면서 금강산 건봉사 최원홍스님
에게 가보라고 권했습니다. 건봉사는 당
시 남한에서 가장 부유하고 큰절이었어
요. 그러다보니 유학승도 가장 많았습니
다. 또 사시사찰 열불만일회도 열리고 있
어 절에 상주하며 만일기도하는 불자들
도 많았지요.
아우였던 무월스님이 먼저 건봉사 강
원에 가 있었는데 우리는 강원에서도 1.2
등을 다했지요. 건봉사에는 박한영, 진진
홍, 변설호스님과 함께 조선 4대 강백의
한분이었던 김일후스님이 계셨습니다. 스

우리는 매일같이 절에 가면서도 부처님 말씀 가운데
단 한 가지도 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 배운 소중한 말씀
300가지

정휴 스님 엮음 (시인, 불교신문사 사장)

우리는 이처럼 주옥 같은 부처님 말씀이
경전에 실려 있다는 사실을 미처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닦지 않으면 그것은 마치 뿌리 없는 나무와 같다
인생도 또한 이와 같아서 무상한 인생은 찰나 사이에 흘러간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닦아 저 불멸의 세계로 나아가라

우리는 날마다 남을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오로지 돈과 출세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모두가 지나친 욕심과 욕망 때문입니다.
이 책에 실려 있는 구구절절한 <소중한 부처님 말씀>은
진정 우리로 하여금 왜 이리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가슴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46판 양장 / 값 5,000원

천오백만 불자들의 가슴을 울리는 불교 명언집!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
300가지

석성우·석지현 스님 엮음

하루 한 구절, 부처님 말씀 300가지!
1년이면 당신도 훌륭한 법사가 될 수 있습니다.

만남이 깊어지면 애정이 싹트고
애정이 깊어지면 고통의 그림자가 뒤따른다.
인색하거나 탐내거나 질투하지 마라.
욕심을 채우고자 정의를 등지지 말고
원망을 원망으로 갚지 마라.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 300가지>는 불교의 여러 경전과
조사 선지식들이 남긴 말씀 가운데서 주옥 같은 명언을
 뽑은 것입니다. 이 책은 치열하게 들끓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따뜻한 부처님 품안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 46판 양장 / 값 5,000원



민족사 전화 02)732-2403-4
팩스 02)739-7565

법보시 후원받습니다.
가까운 이에게는 선물로, 은혜 받은 이에게는 법보시로 이 책을 선물합니다.